| 현불 논단 |

상월결사 1주기에 부쳐



그림 · 최주현

단발성 이벤트 아닌 정통성 가진 불교혁신운동
새로운 수행공동체, 정법불교 나아가는 디딤돌
가을 국토 가로지르는 순례에서 '동체대비' 체감
회향하니 지난 시간 꿈같아…모든 대중에 감사



윤재웅 학장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아, 상월결사

상월결사 1주기를 맞는다. 2019년 11월 11일, 서릿발 내리는 가을밤에 상월결사의 첫 밤이 시작됐다. 위례 신도시의 한복판에 천막을 치고 아홉 스님이 한겨울을 났다. 묵언수행. 하루 밥 한 끼. 14시간의 참선. 90일간 옷 한 벌. 목욕과 삭발 금지. 한국 불교사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불교수행의 새로운 형태가 탄생했다.

돌아보면 고려시대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가 있었고, 1940년대 후반엔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가 있었다. 20~30대의 청청한 수좌들이 기개를 떨친 한국 불교사의 일대 쾌거다. 상월결사는 더 놀랍다. 도심지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세납 60을 훌쩍 넘긴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의 원로 중진 스님들이 함께했다.

산중불교가 도심불교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수행이 기본이라는 부처님 정신의 구체적 실천이었지만 쉽지만은 않았다. 입재부터 결재까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무문관 수행의 막다른 골목이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라고, 마지막 1주일은 철야정진을 자청했다. 장군죽비가 여러 개 부러졌다.

외호대중도 함께했다. 천막 아래 임시 법당을 짓고 아홉 스님을 위해 기도하고 정진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때로는 야단법석 공연도 있었다. 산중의 선방 참선 모델을 파격적으로 혁파하는 새로운 수행법에 일부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묵직한 감동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홉 스님의 상월결사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사람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말로 무어라 설명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그냥 흘렀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많았다. 수행자의 솔선수범이야말로 한국불교 발전의 최우선 해법이 아닌가.

가을 불국정토

결사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불교혁신운동이며 새로운 수행 공동체의 탄생을 통해 정법불교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공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시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불교 '자성과 쇄신'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개혁의 동력이 파격적 혁신으로 나타난 게 상월결사라면 이 혁신결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2020년 들어 상월결사의 뒤를 잇는 만행결사가 기획됐다. 상월결사가 비구스님들만의 용맹정진이라면 만행결사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새로운 불교 공동체의 출발이다.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가 차별 없이 똑같이 수행한다.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며, 길 위를 걷는 '움직이는 불교'다. 이제 한국불교는 찾아가는 불교, 능동적인 불교, 중생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불교로 재탄생하라는 자기 명령을 따르기 시작한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려던 계획이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순례로 바뀐다. 부처님 나라가 어디 인도 뿐이랴. 불자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불국정토다.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500km. 세 시간이면 갈 길을 스무하루동안 걸어간다. 불교중흥, 국난극복, 만행결사, 자비순례의 길이다.

순례단 일원이 되어 체험해보니 세상이 아름답게 빛난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중중첩첩의 산줄기, 말없이 흐르는 유장한 강물. 해와 달과 별빛과 바람, 천산만야의 단풍과 들국화 향기가 온몸에 배어든다. 아름다운 강산이다. 이 가을 이 땅이 온통 부처님 나라다.

국토의 가을을 통짜배기로 지나는 경험도 특별하다. 초추부터 만추까지, 남쪽의 낙동강에서 북쪽의 한강까지, 산줄기가 흘러내려온 길을 따라 산 넘고 물 건너 걷고 또 걷는다.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소리도 새롭게 들린다.

새벽에 일어나 마을을 지나가면 동물들도 순례단의 신심과 원력을 알아차린다. 닭이 울고, 개가 짖고, 소가 소리를 내지른다. 내 발가락이 아픈 것은 중생이 다 아파서인가 보다. 동체대비의 공감이 육도에 다 울려 퍼지면 얼마나 좋을까. 진정한 공감이란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달성군을 지날 때 낙동강변 축사의 씩씩한 황소 소리를 아직 잊지 못한다. "힘~내~", "힘~내애~~" 얼마나 힘차게 내지르는 소리인지 7월의 쌍무지개도 뛰어넘을 기세다. 문경 지나 이화령을 넘어오자 황금 들판에 추수가 한창이다. 가을 햇살이 고슬고슬한 햇밥 같다. 생명이란 이런 거다. 씩씩하고 들썩들썩하는 거다. 몸이 움직여 나아가는 거다.

내일의 또 다른 결사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이들을 자주 만난다. 환희심에 가득찬 얼굴로 박수를 치는데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얼굴을 마주치면 공연히 내가 울컥한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본다. '고마워요. 수고하십니다. 저도 같이 걷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 제 몫까지 걸어주세요. 우리 불교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빵 하나를 나누면 내 몫은 줄어들지만 감동은 나눌수록 모두의 몫이 커진다. 결사란 결국 무엇인가? 잠깐 한 눈파는 사이에 부처님 가르침에 벗어나 있음을 알아차리고 정법불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뉘우치고 마음 다잡아서 초발심의 세계로 나아가자는데 어찌 공감이 없고 감동이 없으랴. 굳게 믿고 간절히 원해서 실천에 옮길 때 모두가 공감하고 감동하는 법이다.

한국불교의 미래가 신심과 원력과 수행에 기초한 공감과 감동에 있다는 걸 실감한다. 순례길 끝에 와서 자문해 본다. 내일의 새 길은 무엇인가. 지옥 밑바닥에서 천상의 꼭대기까지, 뭇 생명이 감동하는 드라마를 계속 써 가야 하지 않을까. 봉은사에서 회향식을 마치고 나니 지난 3주일이 꿈만 같다. 몸은 고달프지만 마음은 편안하다. 동참대중 모두에게 감사하고 함께하지는 못해도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절을 올린다.

순례 기간 내내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이들이 많다. 전염병이 만연한 와중에 순례길을 나선 우리에겐 큰 힘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직 사람이다. 너나 없이 존귀하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다. 서로 위하고 돕는 게 법이다. 돕는 손길이 보살행이요 위하는 마음이 자비행이다. 공감하고 감동하는 서로의 가슴이 우리의 희망이다.

암과 싸우며 순례에 참여하는 보살님이 자자회에서 울먹이며 말한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고 하지 않았나요. 용기를 내서 걷고 싶었어요." 장내가 숙연해진다. 감동으로 하나가 된다. 삶을 향한 치열한 정신은 고통과 싸워 이길 때 더욱 아름답다. 이게 바로 상월결사의 정신이요 실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고통 가운데 피어나고 위대한 승리는 좌절 속에서 성취된다. 나무 석가모니불.

社 說

연꽃마을 30년 재도약 계기되길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3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연꽃마을은 효의 사회화를 주창하며 노인복지를 견인했고, 이후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선도해 온 대표적인 불교복지법인이다. 연꽃마을 창립자 덕산당 각현 대종사의 원력이 지금까지도 불교계 안팎에서 거론되는 이유는 지금의 연꽃마을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각현 대종사는 불교복지의 선각자로 평가된다. 노인복지시설로 시작해 여러 형태의 노인복지 분야로 범위를 확장했을 뿐 아니라 무료병원과 어르신 전문 요양병원까지 설립, 운영하며 연꽃마을의 파격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2014년 스님의 입적 이후 스님의 부재로 인한 그늘이 쉽사리 걷어지지 못한 것도, 스님의 역량과 원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침체기로 접어드는가 했던 연꽃마을이 30주년을 전환점으로 삼아 다시 도약을 준비한다는 소식이다. 각현 대종사의 창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불사를 통해 정체성을 확보했으며, 재정에 큰 부담이 됐던 임대 사무실을 정리했다. 한발 더 나아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법인 사옥 건립불사는 변화의 기폭제다. 쉽지 않은 여건에서 이룬 결과물인 만큼, 연꽃마을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도 됐다.

지난 30년 연꽃마을이 남긴 족적이 크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결집하고 연구해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구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조해 내실을 강화할 때다. 연꽃마을이 이번 전환기를 제대로 맞이한다면 미래복지 30년 역시 연꽃마을이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계, 내부 자성으로 변화해야

남양수 수진사 방화사건의 후폭풍이 크다. 기독교 광신도의 방화로 한 사찰의 전각이 전소된 것은 불자들의 공분을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훼불을 넘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이 우리사회의 화합을 해친다는 공감대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훼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 입장문을 공식 발표한 이유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입장문이 발표된 연유는 중요하지 않다. 주류 개신교계가 훼불사건을 더 이상 '개인의 행위'로 치부하지 않고 "종교의 다름을 떠나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할 이웃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종교적 상징에 대한 방화나 훼손 사건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들에 의한 것이란 사실에 근거하여 극단적으로 퇴행하는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며 회개한다."

입장문에 담긴 이 한 문장에서 개신교의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개신교계가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직시하고 내부적 자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한발 더 나아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수진사 복구를 위한 모금활동을 범기독교 차원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실천적인 형태의 움직임이다.

불교계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개신교계의 이 같은 변화가, 그리고 내부적 자성의 목소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를. 그래서 개신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우리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역할하길 발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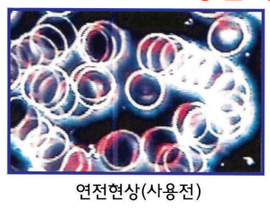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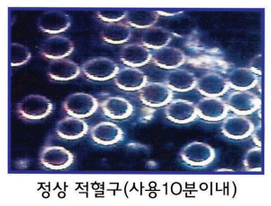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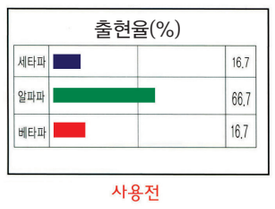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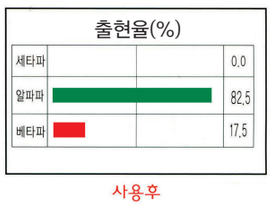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을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주고 혈액,세포,뇌파를 건강하게하는 게르마늄허브비누
포도상구균 99.9% · 폐렴균 99.9% · 대장균 99.9% 정균감소기능으로 아토피, 무좀, 검버섯, 뾰루지,
여드름,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 발뒤꿈치 각질개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릅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 41년 3월생 개발자 본인은 관절 불편을 느껴보지 못했고, 안경없이 신문을 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